

---

- 범정부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후속 -  
**청소년 마약류 접근 차단 추진 상황**

---

2023. 5.



**관계부처 합동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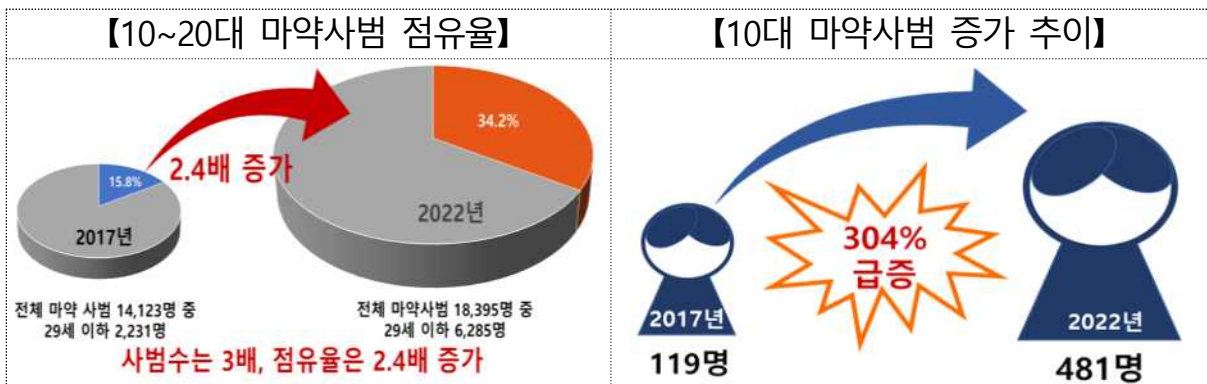
# 목 차

I . 추진 배경 .....	1
II . 주요 대응경과 및 시사점 .....	2
III . 세부 추진방안	
① 마약류 판매 및 투약행위 근절 .....	3
②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.....	5
③ 협력체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 .....	8
④ 홍보 및 소통강화.....	10
IV . 향후 일정[안] .....	12

## I. 추진 배경

- 과거와 달리 마약류의 가격 하락,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거래(다크웹·SNS·가상화폐 등) 활성화, 해외 유입 증가 등으로 전 연령·계층으로 확산
- 특히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미약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~20대들에게 급속히 확산되면서 청소년 마약 사범 급증
  - 전체 마약사범 중 10~20대 비율은 '17년 15.8%에서 '22년 34.2%로 5년만에 2.4배 증가, 10대 사범은 304% 급증('17년 119명 → '22년 481명)

<출처 : 대검찰청>



- 죄의식 없이 마약류 투약 및 판매하는 청소년 범죄사태가 늘어나면서, 이로 인한 건강 폐해(뇌 발달 저해, 중독 의존성, 우울장애 등)는 더욱 심각\* 우려

\* '뇌 발달은 25세까지 이루어지며, 청소년기 마약 노출은 성인보다 기억력, 판단력을 담당하는 뇌의 전전두엽, 측두엽 대뇌피질 손상이 심함' <마약 치료 전문가>

### < 최근 10대 마약류 범죄 주요사례 >

- ▶ (매수·투약사례) ① 14세 여중생이 텔레그램으로 필로폰 구입 또래 남중생 2명과 투약 ('23.3월) / ② 17세 여성 청소년이 성인 2명과 함께 텔레그램과 비트코인으로 필로폰을 구입·투약하여 구속기소('22.4월)
- ▶ (유통개입 사례) ① 고3 수험생 3명이 성인 6명을 '드라퍼'로 고용하고, 텔레그램으로 필로폰, 케타민 등 마약을 판매한 사건('23.4월)
- ② 청소년 4명이 마약유통 조직에 가담하여 판매 목적으로 MDMA, 케타민, 필로폰, 합성 대마, LSD 등 약 2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소지하여 구속기소('23.4월)

## II. 주요 대응경과 및 시사점

### □ 정부 대응

- 관계부처 합동 「마약류 관리 종합대책」 마련('22.10.26) 후, 6개월간의 성과를 점검('23.4.18)하고 보완하는 등 총력 대응 중에 있으나,
  - 청소년 마약 중독 폐해 등을 고려하여, 지속적인 추진상황 점검 필요

#### <주요 성과 및 계획('23.4.18 발표)>

- ▶ '22.11월 '마약류관리 종합대책' 수립 후 4개월간 5,809명 적발
- ▶ 검·경·관세 특별수사본부 840명 규모로 설치
- ▶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, 6억건 의료용 마약류 처방·투약 정보 분석·감시
- ▶ 중독자 치료·재활 인프라 확충, 초중고 마약 예방교육 강화

### □ 시사점

- 학교를 통한 예방 교육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둘러싼 사회환경이 급변하면서 **죄의식 없이 마약에 접근하는 등 경각심 약화 심화\***
  - \* '21년 전체 마약류 사범의 27.5%가 유혹 또는 호기심에서 투약
  - 최근 들어 청소년이 마약을 매수·투약한 사례는 물론, 직접 유통에 개입하거나, 범죄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지속 증가
    - ※ 다크웹·SNS 등 온라인을 통해 몇 번의 검색만으로 손쉽게 마약에 접근이 가능한 환경에서 또래끼리 집단으로 “마약류 투약·거래” 등 범죄 개입 급증
- 반면,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등 합당한 책임을 묻는 제도는 아직 **과거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두려움 없이 범죄에 개입 및 이용** 당하는 실정
  - ※ 청소년 투약사범에 대해서는 촉법소년을 이유로 적극적 사법처리 한계, 청소년 대상 마약 판매자에 대한 처벌 양형기준 등에 대한 변화 필요

## Ⅲ. 세부 추진상황

### ① 마약류 판매 및 투약행위 근절

#### □ 불법 행위 단속 및 처벌 강화

법무, 식약, 경찰, 권익위, 대검

- (단속 강화) 연속성 있는 상시 단속체계 마련, 쏠 기능 총력 대응
  - (수사컨트롤타워) 기존 ‘마약범죄 특별수사팀’을 확대하여 검·경·관세 「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」 구성(‘23.4.10), 합동대응 등 역량 총결집
    - ※ (구성) 검찰(377명), 경찰(371명), 관세청(92명)의 마약수사 전담인력 840명으로 구성 (공동본부장 대검 반부패·강력부장, 경찰청 국수본 형사국장)
  - (합동단속추진단(TF) 운영) 경찰청(국가수사본부장) 및 시도청(시도청장), 추진단장 격상, 쏠 기능 참여하는 TF 운영 등 유기적인 협업체계 구축
    - ※ 기존 마약수사 전담인력 366명(시도청 247명 24개 경찰서 119명) 외 총 154개팀 697명의 형사 인력 보강 - 18개 쏠 시도청 강수대 등 32개팀(169명)과 경찰서 122개팀(528명) 추가 투입
  - (전문 수사인력 확대 운영) 비대면 온라인 거래 단속을 위해 다크웹·가상자산 전문수사팀 쏠 시도청으로 확대(기존 6개청)
    - ※ 전문 수사인력 배치 계획 : (‘23) 6개 시도청 → (‘24) 18개 시도청(22개팀 110명 투입)
  - (의료용 마약류 기획점검)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및 불법유통사범 차단을 위해 식약처·경찰청 등 기획(합동) 점검(‘23.5월, 하반기)
    - \* (‘23.5월) 청소년 대상 의료용 마약류 4종(식욕억제제, 졸피뎀, 펜타닐패취, ADHD치료제) 과다처방 의료기관 점검
- (처벌강화) 청소년 대상 마약류 범죄자 가중처벌 및 청소년 또래 집단에 대한 마약 유통 범죄 엄단 조치(‘23.5월~)
  - (청소년 대상 범죄) 청소년에게 마약류를 공급·투약한 사람\*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기소할 뿐만 아니라 최대 사형무기 등의 가중 처벌조항 적용
    - \*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, 청소년을 마약유통에 가담, 청소년과 함께 마약을 투약
    - ※ 양형기준 강화 : ‘23.5월 출범 예정인 제9기 대법원 양형위원회 안건 상정 추진

- (또래집단 범죄) 청소년이 마약을 유통·판매\*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구속기소 등 엄단 조치

\* 스스로 공급망 구축하여 마약 공급한 청소년, 타인 인적사항을 도용하여 처방 받은 의료용 마약을 또래집단에 불법 유통한 청소년 등

- (집중신고기간 운영) 마약류 유통·투약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('23.4.24~5.31)을 운영하여 공익신고(비밀보장 철저) 적극 유도

## □ 온라인 불법 유통 및 처방행위 신속 차단

식약, 방통

- (온라인 불법 유통 차단)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SNS 등 온라인 마약 거래·광고 게시글 등에 서면(전자)심의\* 도입 추진(계속)

\* (현행) 대면 심의, 주 2회 → (개정) 서면 심의, 주 5회

※ 「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('23.2월 과방위 전체회의 상정)

- (온라인 모니터링) 마약 관련 키워드를 자동 탐지하는 e-로봇\*의 모니터링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해 불법광고 모니터링 체계 고도화('23.9월)

\* 마약류 관련 검색어(성분명, 은어 등) 검색을 통해 오픈형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불법 광고물을 검색하여 URL을 수집하는 상시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

구분	현행	추가
대상	오픈마켓, SNS(트위터), 네이버·다음 등 대표적인 플랫폼 위주	중고거래플랫폼, SNS(페이스북·인스타그램), 구글·Bing 등 검색사이트 확대
범위	웹문서 내 문자 기반	사진·그림 등 이미지 검색 추가

- (처방이력 확인 의무화)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중복처방 방지를 위해 처방의사에 대해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단계적\* 추진

\* 사회적 합의를 거쳐 오남용 우려가 큰 약물군(펜타닐 등 마약진통제)부터 시행

※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일부개정 법률안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('23.2.24)

- (이전까지 조치사항)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·중복 처방 저감을 위해 '의료쇼핑방지정보망' 사용 편의성 개선 등 시스템 활성화 제고

※ (기능 개선)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의료쇼핑방지정보망 동시 가입 기능을 제공('23.3월)하고 환자 투약내역 확인 시 진료의사 본인 인증절차 간편화('23.2월)

## 2 예방 교육 실효성 강화

### □ 청소년 대상 맞춤형 교육지원

식약, 교육, 법무, 여가, 경찰

- (학교 교육시간 확대) 마약류 등을 포함한 약물 중독 예방 학생안전 교육 강화를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\* 추진(~'23.8월)
  - \* 「학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'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교육(10차시)' 중 **약물 중독 예방교육 이수 시간 제시**(예시 : 유치원 및 초등학교 : 5차시 / 중학교 : 6차시 / 고등학교 : 7차시)
  - ※ '23년 학생 안전교육은 이미 수립·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'24학년도부터 적용'하되, '23년 2학기에는 현재 '약물 및 사이버 중독예방 교육' 이수시간(10차시) 내에서 약물 중독 예방교육 확대 권고
- (교육실태 점검) 학교에서 마약류 예방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별 **학교 교육실적 모니터링\*** 및 지도강화('23. 7·12월)
  - \* 학교별 연간교육계획 반영 지도, 마약류 예방교육 이행 점검 등
- (집중 교육) '청소년 마약예방 집중 교육기간' 운영('23. 4월~6월),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마약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을 병행(경찰청)
  - 마약의 종류·효과 단순 설명보다 마약의 폐해·처벌에 중점을 두고 '시음행사 가장 마약음료' 유사사례 관련 대응 교육 병행 실시 중
- (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)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기초소양 교육으로 **마약 등 예방교육 강화**(~'23.12월)
  - \* 학교 밖 청소년 마약류 예방교육 교재(식약처 개발) 보급 및 강사인력 활용
- (소년범 마약예방 교육) 소년범 대상 **마약예방 및 재발방지 교육** 실시
  - (소년수형자) 소년수형자 등 대상 마약류 폐해, 마약 오·남용 방지, 마약류 유혹에 대한 대처방법 교육(2시간) 실시('23.4월~)
    - ※ 서울남부교도소를 시작으로 소년수형자 수용 기관별 분기 1회 이상 실시(전체 100여명 수용 중)
  - (소년원생 등) 소년원생 등 대상 **마약예방(약물중독예방) 교육 필수 실시**(~'23.4월~)
    - ※ 전문가 연계 교육상담(상시), 자체 교육프로그램 보급 및 담당직원 전문성향상 연수(4월~8월)

□ **교육콘텐츠 개발 및 지원 강화**

식약, 교육, 여가

- (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) 학생, 교사, 부모 등으로 교육 대상을 세분화 하여 **눈높이에 맞춘 콘텐츠\*** 지속 개발·보급(~'24)
  - \* (학생) 접근 예방거절방법 / (교사) 교육과정 / (부모) 가정 내 마약 문제 대응조기교육 필요성 등
  - ※ 맞춤형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한 연구사업 진행 중('23.2월~)
- (교육효과 내실화) 가상현실 등 신기술로 **오남용의 정신·신체적 폐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 마약에 대한 호기심 차단 효과 극대화**(~'23.12월)
  - \* (예시) 마약 중독 10년 후 나의 모습, 마약류 가상 투약 시 이상반응 체험 등
  - (1차)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·상담 공간 구축('23.9월), 시범운영('23.10월~12월)
  - (2차) 전시관·체험 공간 및 가상현실 체험 콘텐츠 개발을 통해 **참여형 청소년 예방 교육 공간 완성**('23.12월)



- (교육자료 제공지원)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한 교육자료 등은 각급 학교에서 이용이 편리하도록 **학생건강정보센터\***에 탑재·안내('23.3월~)
  - \* 학생 건강증진 관련 각종 정보(교육자료 등)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개발하여 운영 중인 누리집(<https://www.schoolhealth.kr>)

□ **예방 교육 담당 교원 및 강사 전문성 강화**

식약, 교육, 법무, 관세

- (교원연수 강화) 학교 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담당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**상시 연수과정 개설·운영\***(~'23.5월~)
  - \* 최신 마약류 종류 및 특성, 부작용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연수 과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언제든지 수강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 형태로 운영



- 학교 내 마약 예방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**학교 관리자 연수 시 마약류 관련 내용 추가**(23.5월)

※ (자격 연수) 교(원)장 자격연수 및 국가정책연수에 해당 내용 반영 검토(23.5월~)  
 (직무 연수) 시도교육청 주관 학교 관리자 연수 등에 해당 내용 반영 안내(23.5월~)

○ (전문강사 양성 및 지원 ) 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 강사 양성 및 보수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 강화, 체계적인 강사 관리제도 시행(연중)

- (전문강사 양성) 청소년의 인식 및 행동특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**청소년 중독 예방 전문강사 추가 양성**(109명\*)

\*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 : 45명, 식약처(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) : 64명

- (전문강사 지원) 학교에서 실시하는 자체 교육 이외에 관계부처 및 관련 전문기관 전문가를 강사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\* 마련

\* 온라인 기반 전문강사 출강 요청 등 시스템 구축 완료(법무부, 식약처)

<지원 현황(예정 포함)>

구 분	법무부	식약처(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)	비고
지원분야	법교육	중독 예방	
지원횟수	1,300회	4,000회	무료 교육

※ 관세청의 경우 현업에 종사하는 수사인력을 강사로 요청 시 지원 예정

〈 외부 전문강사 활용사례 〉

- |   |   |
|---|---|
| <p>▶ <b>찾아가는 마약예방 법교육</b>(법무부 협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간 : '23. 3월~12월</li> <li>• 대상 : 초·중·고 학생</li> <li>• 내용 : 법무부 법교육전문강사 등(327명)이 학교를 찾아가 마약 예방 법교육 무료강의</li> </ul> | <p>▶ <b>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강사 활용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기간 : 연중</li> <li>• 대상 : 초·중·고 학생</li> <li>• 내용 : 마퇴본부 소속 전문강사(약사 등)으로 327명)가 학교방문 무료교육</li> </ul> |
|---|---|

### 3 협업체계 강화 및 인프라 확충

#### □ 협의체 구성·운영

식약, 교육, 법무, 여가

- (유관기관 협업) 마약류 예방 교육 활성화와 홍보 강화 등 협력 강화를 위한 협의체\*(식약처, 교육부, 법무부, 여가부) 지속 운영('22.11월~, 분기별)
  - 마약류 예방(예방 분과) 및 재활(치료·사회재활 분과) 협력·소통으로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재활의 유기적 체계 운영
  - \* 부처별 예방 교육 현황(대상·시간·방법·예산 등) 및 활성화, 홍보역량 극대화 방안 등 협의
- (민관 협업) 마약, 헤로인 등 단어 포털 검색 시 마약 중독 예방을 위하여 추진중인 범국민 캠페인을 우선 노출하여 접근성 강화



#### □ 실태조사

복지, 교육, 여가, 법무

- (마약류 노출 및 사용)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 및 사용, 중독 치료 등 실태 파악을 위한 대상자별 조사 실시
  - 일반 청소년 대상 마약류 노출 및 사용 현황 대한 실태조사 실시('23)
  - 청소년 마약류 사범 및 고위험군 대상 심층조사 실시('24)
  - \* 대상자별 접근전략 및 맞춤형 조사도구 개발을 통한 사용 및 중독 현황 등 조사예정
  - ※ 상기 심층조사와 별도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, 보호관찰소, 소년원 등 소년 처우 모든 단계에서 마약류 사용 모니터링 실시('23., 법무부)

## □ 인프라 확충

복지, 식약, 여가, 대검

- (중독재활센터) 기존(서울, 부산) 시설 외 충청지역(대전) 우선 추가 설치('23.7월)
  - 미국 재활기관(사마리탄 데이탑빌리지)과 MOU 체결 등을 통해 청소년 재활프로그램 개발
    - \* 청소년 재활프로그램을 개발(6월)해 신설 중독재활센터에 적용
    - ※ 확대계획 : ('22) 2개소(서울, 부산) → ('23) 3개소(충청 추가) → ('24~) 17개소(전국 시도)
  - 취약시간(야간) 접근성을 높이고, 신속한 개입을 위해 '24시 상담센터 시범운영('23년 하)
- (재활 프로그램) 청소년·중독자 가족 등 대상별로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 개발 추진('24~)
 

- (대상별) 계층별로 마약을 접하는 계기, 심리상태, 건강상태 등 고려
    - \* (UNODC) 인구 그룹별(청소년, 여성, 노인, 특정직업군 등) 요구에 맞는 재활 제공
  - (약물별) 마약, 향정신성의약품, 대마 등 약물별 중독성·의존성 등 특성 고려

  - ※ 국립청소년디딤센터의 치유 프로그램을 현행 정서·행동문제 중심에서 유해약물 문제 청소년 지원으로까지 확대(여가부, '23~)
- (맞춤형 치료·재활 실시) 단순 투약 청소년에 대하여 교육·선도·치료 조건부 기소유에 적극 활용, 치료·재활의 기회를 확대, 청소년 범죄예방 위원회 선도 병행
  - '23년 하반기부터 식약처·보건복지부·법무부·대검찰청이 협력하여 중독사범에 대한 맞춤형 치료·사회재활 프로그램 시범운영
- (온라인플랫폼) 여러 홈페이지에 분산된 홍보·예방·치료·재활·처벌 등과 관련된 정보를 공동 운영·활용하는 통합 홈페이지 구축('23.12월)
  - \* (주요기능) 예방·재활 교육, 비대면 예방·재활 상담, 홍보 및 정보제공 등
  - \*\* (정보공유) 부처 사이트 등은 지속 운영하고, 플랫폼은 관련사이트 링크 연결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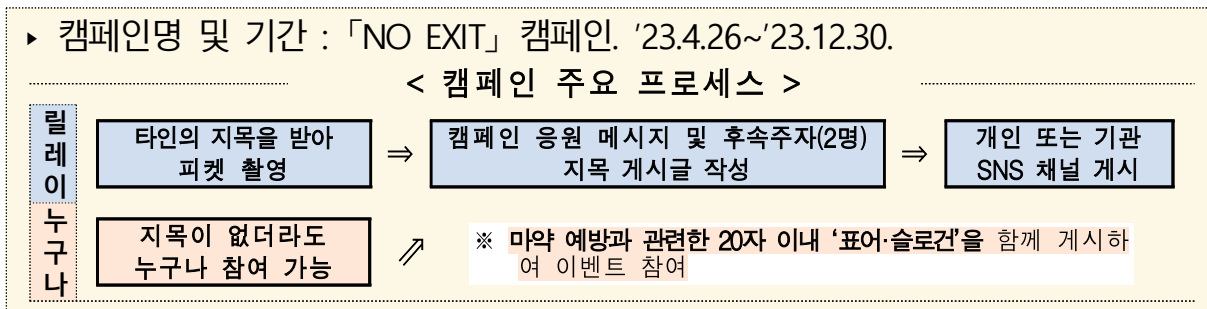


## 4 홍보 및 소통강화

### □ 마약류 중독 예방 홍보

식약, 교육, 법무, 경찰

- (릴레이 캠페인) 마약의 무서움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하고, 마약 투약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범국민적 예방 캠페인 추진(경찰청, '23.4월~)
  - ※ 명예경찰 '최불암 배우'를 1호로 시작, 경찰청장 포함 2명 지목 → 국무총리 촬영 예정(5월3주)



- (범국민 캠페인) '마약과 끝낼 신호, SOS'라는 슬로건으로 마약류에 대한 호기심을 거부하고,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캠페인 추진('23.6월)
  - '세계 마약퇴치의 날'(6.26)을 기념하여,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중독예방 및 중독자 치료·재활 홍보 영상 등 제작·송출
  - \* 청소년 특성을 고려한 TV, 유튜브(쇼츠) 등 SNS, 신문, 대중교통 등 광고 등 실시

◆ 마약과 끝낼 신호, SOS(Support On Stop and start)

- (Support On Stop) 정부 지원으로 마약류에 대한 유혹과 호기심을 멈춘다는 의미
  - \* 교육홍보 등을 통해 마약류 중독의 피해를 명확히 인식하고, 마약류의 유혹과 호기심을 멈추는 모습을 영상·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
- (Support On Start) 정부 지원으로 중독자가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
  - \* 마약류 중독자가 새로운 삶의 시작을 선언하고 중독의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을 영상·포스터 등을 활용해 홍보

- (홍보 활동) 유사 범죄 재발방지 및 중독 예방을 위한 특별 홍보 추진
  - 초·중·고교생 및 학부모층 사용 빈도가 높은 홍보매체 활용, 불상자가 제공하는 음료 및 간식류 등 섭취 금지 관련 홍보 실시(경찰청, '23.4월~)

▶ 시음행사 가장 마약음료'를 「신종유형 발생경보\*(제5호)」 발령, 시·도교육청 및 학원총연합회, 경찰청 운영 SNS 등을 통한 홍보 실시

\* 청소년 대상 신종유형 범죄 발생시 학생·학부모 등에게 카드뉴스 형식으로 신속하게 전파

- 법무부 홍보대사 및 청년·대학생 자원봉사단(저스티스 서포터스 35개 팀) 참여, 온오프라인 마약 예방 캠페인 실시(법무부, '23.4월~)

▶ 법무부와 2012년 런던 올림픽 체조 금메달리스트이자 법무부 홍보대사인 양학선 선수 협업, 법무부 마약근절 캠페인 진행

\* 라디오 캠페인 광고, 수도권 지하철 디지털 포스터 광고(4. 15. ~ 1개월 간), 포스터 현장 배포(~4. 30.)

\* KTX-SRT 및 지하철 전광판 홍보(5. 10. ~ 6. 9.) \* 영상은 누리소통망(유튜브, 인스타그램)에 순차적으로 게시



## □ 마약류 중독 예방 인식 제고

- (마약범죄 모방방지) SNS 등에 익숙한 청소년 등이 언론보도를 접하고 호기심에 의해 범죄를 따라할 수 있는 환경 개선('23.5월~)

※ 「마약류관리법」 상임위 계류중

- 마약범죄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고, 언론이 준수하도록 협조 요청
- 특히, 방송 등에서 마약류를 투약하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등의 방송내용을 송출하지 않도록 모니터링·심의 및 방송사 자체 심의역량 강화 지원 추진

※ 「방송심의에 관한 규정」

제38조(범죄 및 약물묘사) ② 방송은 범죄의 수단과 흥기의 사용방법 또는 약물사용의 묘사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, 이같은 방법이 모방되거나 동기가 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방송은 마약류의 사용 및 이로 인한 환각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서는 아니된다.

- (학생 공모전 개최) 각급학교에서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참여 독려를 위한 공모전 개최 및 우수 추진사례 포상('23. 10월)

- 공모전을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전국 모든 유치원 및 초·중등학교에 전파, 마약류 중독예방 교육활동에 참고토록 조치

\* 포상 규모 : 교육부장관 표창 14점

※ 추진일정 : 개최계획 확정·안내(4.28) → 우수사례 공모(9월) → 심사(10월)

## □ 현장소통 강화

교육, 행안

- (전문 위원회 운영) 학교 현장의 수요 파악 및 마약 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등 역할을 수행하는 '학교 마약예방교육 지원 전문위원회' 역할 강화('23.5월)

-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자료 개발 및 검토, 학교 현장의 의견 청취 외 학교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정책 자문 등 역할 확대\*
  - \* 위원 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: (현행) 8명 위촉('23.2월) → (확대) 13명 위촉('23.5월)
- (가정 연계) 학부모 대상 마약류 중독예방을 위한 홍보 강화('23.5월~)
  - 학교를 통한 대면 교육\* 또는 가정 통신 등을 활용하여 마약류 중독 예방 관련 자녀 지도요령 안내 및 위험성 인식 등 제고
    - \* 학교운영위원회 개최, 공개수업 참관, 학교상담주간 등 이용
- (주민 인식) 자치단체 홍보 채널을 통한 마약 위험성 인식 제고('23. 하)
  - 내고장알리미, 반상회보 등을 통해 홍보·교육자료 등 배포

#### IV. 향후 일정(안)

- 마약류 중독 예방 범국민 캠페인 추진(연중)
-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자료 개발·지원 및 교육 강화(연중)
- 세부 추진실적 점검('23.하)